

바보들의 행진

마가복음 16:1-8

2021년 4월 4일

부활절기가 다가와서, 선생님이 새 생명을 연상케 하는 것을 하나씩 상자에 넣어오는 숙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자폐증세를 가지고 있는, 다운신드롬 증상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능이 보통아이들보다 낮은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스티브가 숙제를 잘 이해 못하여서 창피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가져온 상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내가 가져온 거야" 또 다른 상자 열어보니까, "돌" 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가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서, 돌에 이끼가 끼어있는 데, 그 이끼가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는 "나비" 가 나왔습니다. "내가 가져온거야" 한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스티브 것이라고 판단하고, 얼른 다른 상자를 잡고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때, 스티브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어, 그거 내 것입니다. 왜 그냥 넘어가지요?" 선생님의 답변이, "아무 것도 없잖아."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이 비워 있었잖아요. 모두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지요." 그 해 여름에 8살이 된 스티브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학생들이 스티브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8개의 상자를 그의 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모두 빈 상자입니다. 빈 무덤, 부활, 새 생명의 표시이지요.

부활하면 빈무덤, 빈무덤하면 새생명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생명절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였는데, 한 친구가, "저요, 저요. 저 알아요." "그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지?"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서서 두 손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자.. 잔"

놀라운 소식.. 놀라게 하는 소식..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갈릴리 주님 부활하신 후 2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 아리마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소유한 그 새 돌무덤에 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했습니까?" 요셉이 어깨를 한번 올리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주말만 잠시 사용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주말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무덤 입구를 막아 둔 그 큰 돌을 누가 굴러줄까 서로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빈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났다면, 여러분과 저도, 무서워 떨고,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귀신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며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가서, 빈무덤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다들 믿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10-11)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소리야. 말도 안돼”

사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보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도 결국은 죽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이라고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각을 변동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 짜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 믿음의 내용을 100 퍼센트 앞뒤가 딱 들어맞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 시키려고 애쓰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을, 인간의 지성으로 분석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것은 시간 허비, 정력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겸손히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지성으로, 믿겨지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하시는 일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 어리숙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만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건을 믿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믿고 기뻐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바보들입니다.

세상 물결에 밀려가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 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거슬러서, 하나님이 뜻을 헤아리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바보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바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고, 죽음에 눌러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고 사는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에, 충만히 빛추고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충만하여, 그 기운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원수마저도 품고 사랑하는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 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조건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냐, 남자냐 여자냐 모두 하나임을 믿고, 인종 차별, 성 차별,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바보들입니다.

세상은, 증오와 혐오 그리고 차별하며 사는 것이 생존하는 길, 사는 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랑과 화해와 포용이 사는 길이라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줄 알면서도, 소리치고 실천하는 바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심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 바보들입니다.

부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나라 사역에 헌신하는 바보들입니다.

1

또, 부활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매일 만나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아닌 바보들입니다.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한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나이가 드신 한 권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가 3 일만에 부활하셨다 하시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빙그레이 웃으시면서, 권사님이 답하기를, “다시 살아나셨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만났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 만나 뵈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친히 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세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 주일 여기에 계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계십니다. 친교하는 그 시간에 계십니다. 만나 대화할 때에 계십니다. 심방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드 나이트 런.. 비가 오는, 10 월 31 일 할로윈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돌아서는데, 홈레스 형제가 제게, 비가오는데, 운전 조심해서 귀가하세요. 그러는거예요. 저는 그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비오고 추운 날, 잠 잘 곳이 변변치 못한 그 사람이, 지붕이 있고 따듯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잘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슬퍼하고, 외롭고, 헐벗고, 놀리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어디계십니까?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7 절 말씀..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의 세월동안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삶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빨리 갈릴리로 오너라!'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 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아픔과 쓰라림, 외로움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 후회와 번민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매 식사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고, 주님은 대화 가운데 조용히 들으시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갈릴리, 우리 가정에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일터에 가 계십니다.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터에서 보이지 않은 동료, 동업자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에 우리보다 먼저 그 곳에 가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동참하시어, 들으시고, 힘주시고, 웃음도 주십니다.

프랑스 시인인 폴 벨러리 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꿈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꿈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꿈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깨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고,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어디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활짝 뜨고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보시는 하루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사역하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뵈옵고, 귀를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하루 하루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